

다. 최씨가 현 사람이 된 것은 이에서 비롯되었는데 공은 5대 손이다. 그러나 그 비의 소재와 흔적이 지금에 와서는 불분명하나 이 사실을 1578년 율곡전서(栗谷全書) 최수현 신도비에서 자료를 얻어 1970년 군관내의 해안 요소 일대를 조사하였으나 임진란 때 왜구들이 고비(古碑)를 훼파(毀破)한 것으로 확정하여 당시 고비재건립추진위원장인 최익성(崔益晟)과 유림(儒林)의 협의를 거쳐 울진군수 안동후인(安東後人) 김일규(金一圭)의 찬으로 연호정 옆에 1971년 11월 28일에 새로 기적비(紀績碑)를 건립하였다.

건립된 현 고비[울진고등학교 앞의 연호정 진입 산등] 일대를 마을 사람들이 옛적부터 귀비등(貴碑嶝)이라고 칭하였다 하니 이는 우연의 일치로 명기 서린 옛 자리를 다시 찾아 유림 후손들이 모여 제막식을 향파임으로 성대히 거행하였으니 “충용(忠勇)의 본보기”로 군지에 나타난 고비의 장(章)을 재현(再現)시킨 것이다.

제6절 만세기념탑비

1. 울진기미독립만세기념탑비문(蔚珍己未獨立萬歲紀念塔碑文)

역사(歷史)는 증언한다.

이 나라 민중(民衆)의 혈관 속에는 폭력에 꺾이지 않는 기개의 맥박(脈搏)이 살아 숨 쉬고 정의를 위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피의 전통(傳統)이 용솟음치고 있음을!

기미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의 독립선언(獨立宣言)으로 왜구(倭寇)의 말굽 아래 10년 짓밟혀온 겨레의 분노에 찬 함성(喊聲)이 활화산(活火山) 터지듯 삼천리 방방곡곡에 만길 불꽃을 뿜었다.

풍광(風光)도 수려한 울진도 불의(不義)에 좌시(坐視)하지 않은 유서(由緒) 깊은 행동의 고장이다.

와신상담(臥薪嘗膽)하던 이곳 선구자(先驅者)들. 독립선언(獨立宣言)에 고무되어 매화(梅花)·울진읍(蔚珍邑)·흥부(興富)의 장날을 가려 봉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3월 11일 매화 장터의 수백 군중이 외친 만세와 위세는 남수산(嵐崖山)의 기상보다 더 높았고, 4월 12일 울진읍 장날의 거사(舉事)는 선구자(先驅者)의 피검(被檢)으로 불발되었으나 4월 13일 흥부(興富) 칠보산(七寶山), 새말 배골재의 주야(晝夜)에 걸친 만세의 물결은 동해의 노도보다 더 거세었다.

충의(忠義)의 혈통을 이어온 이곳! 애국 충정의 피맺힌 절규(絕叫)는 천지신명(天地神明)에 사무쳤을 것이요, 장날 따라 연이은 봉기(蜂起)는 이 땅 지켜 온 선열(先烈)들의 넋을 달랬

을 것이며, 서리 같은 총칼 앞에 불을 뿐만 아니라 고함(高喊)은 동해의 풍랑을 타고 섬나라 산야에 역사의 응징(膺懲)으로 메아리쳤을 것이다.

이 고장 충절의 후예(後裔)들은 그 거룩한 정신과 그 용감한 기백을 천추만세에 전하고자 의거의 발상지(發祥地) 매야(梅野) 동산에 정성을 모아 기념탑을 세우나니.

지나는 사람들의 귀속마다 그때 열사들의 우뢰같은 만세의 함성이 들릴 것이요.

지나는 사람들의 가슴마다 자주(自主)·자존(自存)·평등(平等)의 3.1정신(精神)을 되새기게 되리라.

단기 4323년 6월 일

한국광복회장(韓國光復會長) 이강훈(李康勳) 찬(撰)

2. 흥부장터 기미만세기념탑비문(己未萬歲紀念塔碑文)

정사(正史)는 숨쉰다.

매봉산 일맥이 동해로 뻗어 넘치는 정기로 솟아 만든 칠보산(七寶山) 옛터! 흥부(興富) 장터! 우리 선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북면(北面)의 정기(精氣)이자 울진의 혼(魂)이 서린 이곳 경술년(庚戌年) 왜구(倭寇)가 우리의 국권(國權)을 늑약(勒約)하자 전국의 선열들은 분연히 일어서서 항일운동(抗日運動)을 일으켰다.

기미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대한(大韓)은 자주독립국(自主獨立國)임을 만방에 선포하는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자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이 전개(展開)되고 있을 때 양주(楊州) 사람 박사영(朴士永)이 서울로부터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을 가슴에 품고 고목리 지장동(芝藏洞)에 잠입하여 선언문을 접한 동네 사람들은 분루(忿淚)를 삼키며 군내(郡內) 장날을 기하여 의거(義舉)할 것을 결의하였다.

1919년 4월 13일 정오 고목사람 전병항(田炳恒) 남병표(南炳豹) 두 사람은 여러 동지(同志)들과 시장에 들어가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동참을 권유하며, 태극기를 펼쳐 들고 대한독립만세(大韓獨立萬歲)를 외쳤다.

천여군중(千餘群衆)이 따라 외치니 장날은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 그 기세(氣勢)! 노도(怒濤)와 같았다. 주동한 두 사람은 출동한 일헌(日憲)에게 체포되어 부산형무소(釜山刑務所)에서 각각 7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그날 저녁 흥부(興富) 사람 김일수(金一壽)는 일상(日常) 매일신보(毎日申報) 강독(講讀)으로 전국에서 3·1운동이 전개됨을 알고 있던 중 낮에 흥부시장에서 만세를 주도(主導)한 전(田)·남(南) 양인(兩人)이 구금(拘禁)됨을 알고 분기충천(憤氣沖天)하여 동내 청년 황종석(黃宗錫)·홍우현(洪祐鉉)·김기영(金琪榮)·김도생(金道生)·김봉석(金鳳錫)·김재수(金在壽)와 나곡사람 박양래(朴揚來) 삼척(三陟) 월천(月川) 사람 이상구(李相龜) 등과 의거(義舉)를 결의

하고 시장에 들어가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면서 고성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출동된 일헌(日憲)과 격투 끝에 모두 체포되어, 주동한 김일수(金一壽)는 7개월, 그 외 7명은 4개월의 옥고를 부산형무소(釜山刑務所)에서 치렀다.

이제 그날의 만세운동(萬歲運動)이 옛이야기가 됨이 아쉬워 주민의 뜻을 모아 의거현장(義舉現場)에 광복 50주년을 맞아 탑(塔)과 비(碑)를 세우다.

명시(銘詩)

칠보산(七寶山) 소나무 바람 흥부장날 외친 함성

그날의 만세(萬歲)소리 되어 3.1정신(精神) 승화(昇華)되어

만세(萬歲). 만세(萬歲). 만세(萬歲) 영원(永遠). 영원(永遠). 영원(永遠)

동해바다 성낸 파도

그날의 군중(群衆)되어

호국(護國). 호국(護國). 호국(護國)

서기 1995년 8월 15일

초대군의원(初代郡議員) 전인식(田仁植) 찬(撰)

제7절 명(銘)

1. 정(亭)

1) 영모정(永慕亭)

(1) 주련명(珠聯銘)

신선 배의 신령한 절벽이요 도동의 이름난 곳이로세 / 仙槎靈壁道洞名區

우리 선조께서 가보신 곳 오동나무 심은 정원일세 / 我先祖省楸之園庭

그곳에 재궁과 주방을 마련하고 다른 집도 곁에 지었다네 / 備齋廚之丙舍底傍

이에 강당을 만들어 이 정자에서 열을 기다렸다네 / 酒首構堂永慕是亭

때를 정해 서로 모여 선세의 업적을 이야기했지 / 定期會合講先世業

더러는 한 잔 술도 나누니 화수의 정이 가득했다네 / 間以觴詠悅花樹情